



소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

‘말의 해’를 기념하여

탁월한 인그레이빙과 그랑 퓨 에나멜로 선보이는 타임피스

주요 특징:

- **탁월한 미니어처 작품:** 에나멜 케이스백에 80 시간의 정교한 핸드 인그레이빙으로 새겨 넣은 말의 위풍당당한 실루엣
- **메티에 라르™ 노하우:** 불투명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과 다이얼의 완벽한 조화
-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2026 년 새해를 기념하여, 예거 르쿨트르는 그랑 메종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을 더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Horse)’을 선보입니다.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은 새해에 선보이기 앞서, 2025 년 9 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예거 르쿨트르의 'Dream Shaper' 전시에서 특별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말의 두 가지 상징을 담아낸 새로운 트리뷰트 타임피스

1931 년, 독창적인 회전 케이스를 장착한 리베르소는 폴로 경기 중 워치 다이얼과 글라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기원은 승마 스포츠인 폴로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독특한 아르데코 디자인과 맞춤 장식이 가능한 케이스백으로 각계각층의 시계 애호가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은 호랑이, 용, 뱀의 해에 이어, 십이지신에 경의를 표하는 시리즈 중 네 번째로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힘, 아름다움, 자유, 생명력, 속도, 인내를 상징하는 말은 동양의 예술과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이 리베르소의 케이스백을 장식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말

워치 케이스의 뒷면에는 황금빛 구름을 뚫고 위풍당당하게 솟아오르는 듯한 말이 핸드 인그레이빙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말을 둘러싼 불투명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은 폴리싱 처리된 말의 표면을 돋보이게 하는 한편, 블랙 로둠으로 직접 그려 넣은 갈기와 주둥이, 발굽의 대비되는 디테일은 말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구름의 샌드블라스트 텍스처로 더욱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입체감과 깊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과 탁월한 테크닉이 요구되는 정밀한 모델링 인그레이빙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은 메탈 표면에 인그레이빙을 새기는 일반적인 작업 공정과는 달리 그랑 퓨 에나멜 코팅을 마친 후 인그레이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에나멜이 손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했습니다. 크기가 다른 10 개의 끌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메탈을 조각하기 위해, 인그레이빙 장인은 80 시간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의 다이얼은 케이스백과 동일하게 글로시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을 갖추었습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을 반영한 심플하고 우아한 시그니처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에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 레일웨이 미닛 트랙 및 도피네 핸즈를 장식하여 빛나는 배경의 아름다움에 완벽함을 더해주는 동시에 리베르소의 미학을 계승합니다.

블랙 에나멜에 담긴 심플한 매력은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랑 퓨 에나멜의 특성과 대조적입니다. 깊고 그윽한 블랙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5~6 겹의 에나멜 층이 필요하며, 한 층을 더할 때마다 며칠에 걸쳐 가열과 냉각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완벽하고 균일한 광택을 얻기 위해 반나절 동안 폴리싱 작업을 거칩니다. 컬러와 투명도가 완벽히 일치하는 두 개의 표면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장인들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자체 에나멜 및 인그레이빙 아틀리에를 갖추고 있는 극소수의 매뉴팩처 중 한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공예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체 제작 기계식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를 탑재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은 시와 분을 표시하며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칼리버와 마찬가지로, 이 무브먼트 역시 스위스 발레드주에 위치한 그랑 메종의 매뉴팩처에서 전적으로 설계 및 생산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말’을 통해 장인 정신과 예술성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뉴팩처 워치메이커들의 기술력과 문화, 그리고 창의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스’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K)

크기: 45.6mm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불투명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블랙 에나멜, 인그레이빙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가죽, 교체 가능한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39324D3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건딜 수 있도록 제작된 워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5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